

[월간] 2020年 9月 1日(화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1年 第 543 號

제428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기념제 봉행



문정우 금산군수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이치대첩을 기리는 제428주년 이치대첩기념제가 26일 10시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에 위치한 충장사에서 문정우 금산군수,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이연형 금산경찰서장, 양정숙 충남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석곤·김복만 충청남도의원, 최명수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종학·김근수·신민주·심정수 김왕수 금산군의원, 김상곤 완주문화원장, 장호 금산문화원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간소하게 봉행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금산문화원에서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확인 및 발열 체크를 하였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기념제는 이치대첩기념제주진위원회 김설일 위원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문정우 금산군수의 인사말, 현화 분향 순으로 봉행되었다.

문정우 군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태와 수해로 인해 당초에는 3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규모있게 기념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치대첩은 1592년 권율장군의 지휘하에 관군과 의병이 우리 땅에 침략해 온 왜적을 물리친 역사적인 승리였다. 그 승리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셨다. 우리는 이 정신을 계승하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만 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적으



로 입증된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으로 꼭 이겨내리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제428주년 기념제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행사를 준비해주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호 금산문화원장은 이치대첩의 빛나는 승전의 기록을 낭독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이치는 전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로 배나무(梨)가 있는 고개(峙)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베티라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한 승리의 전투가 이치에서 있었습니다.

권율장군이 1500여 군사를 이끌고 결사전을 벌인 끝에 적을 섬멸한 이치대첩은 행주대첩, 진주대첩보다 앞서는 임진왜란 차이가 났으므로 기세등등하게 이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권율장군은 장졸들을 향해 ‘오늘 이 짜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전투 중 분전하던 황진장군이 적의 조총을 맞아 부상을 당하며 수세에 몰리자 권율장군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서며 전투를 독려하자 다시 아군의 사기는 충천해졌고 마침내 적들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던 적들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던 기병장 권승경의 복병에게 또다시 최후의 일격을 당합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 가장 불리했던 위기 상황에서 호남으로 진격하던 왜군을 막아내어 호남을 지키고 조선을 구한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어서 호국 영령들의 뇌를 기리고 결사 향전으로 왜적을 섬멸한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을 담아 현화와 분향을 했다.

기념제는 현화 분향을 끝으로 10시 30분에 모두 마쳤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용기 대전종친회장과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이치대첩기념제 현화 분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오른쪽), 권경관 금산종친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용기 대전종친회장과 권경관 금산종친회장이 제428주년 이치대첩기념제에 참석하여 충장공 권율도원수와 호국 영령들을 위해 현화 분향을 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

산되는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하여 이치대첩제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국장 권행완

9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권형남(유한정보산업) : 100,000

부회장

권용일((주)세화금속 ENG대표) 1,000,000
권영복(산청지역종친회장) 1,000,000
권용준(요양병원 이사장) 1,000,000
권병근(성균관 유도회 합천 지회장) 1,000,000
권무탁(대영고등학교 이사장) 1,000,000
권영식(영동포구의원) 1,000,000
권혁춘(화봉회 회장) 1,000,000

종무 위원
권오신(포항) 200,000
권영익(안동) 200,000
권호규(안동) 200,000
권종호(포항) 20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200,000
권학주(원주) 200,000
권무탁(영주) 200,000
권혁두(김해) 200,000
권오수(안동) 200,000
권영재(예천) 200,000
권태혁(안동) 200,000

총 : 12,9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7월호 종보 정정내용

*종무위원 회비 권태연(제천) 200,000 → 권춘탁(영주) 200,000

※임원 선임 변경내용

*부회장 권승일(일본관서종친회장) → 권승일(일본관서종친회 부회장)

*종무위원 권영희(안동) → 권영채(예천)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 협 :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